

“5극 3특 대응”...시·도 지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 속도

광주전남RISE센터 초광역 협약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공동 대응 성장엔진 시범 프로젝트 등 추진

새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지역 지·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10일 광주·전남 RISE(라이즈·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전남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광주·전남 RISE 초광역 지·산·학·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부응하고 광주·전남이 초광역권

차원의 공동과제 발굴을 통해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5극 3특 기반 초광역 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공동추진, 성장엔진 시범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이다.

이날 4개 기관은 '초광역 혁신 인재 양성'과 RISE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동시에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RISE기본계획과 연계한 양·도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기업지원·인재양성·평생교육·현장실습 등을 위한 시·도 간 연계 협력, 광주·전남 주력산업과 관련한 맞춤형 산학협력, 초광역 인재 양성 등에 힘을 모은다.

각각의 협약은 광주·전남이 교육과 산업, 인재를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희승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잇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잡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 성장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RISE센터는 향후 '광주·전남 RISE 초광역 협력 전략 세미나'를 여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지사 '전남-경북 동서미래포럼' 참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동서연대, 지방소멸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전남-경북 동서미래포럼'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박수치고 있다.

박원종 도의원 “‘무적자’ 제도적 지원 첫 걸음”

전국 첫 발굴·신분회복 조례발의

전남도의회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이른바 '무적자'들의 신분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회복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이



떠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무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의료·요양·복지·주거 한번에”...전남형 통합돌봄 박차

도, 보성서 돌봄정책 발전 모색 생활밀착형 서비스 수립·확산

전남도가 의료와 요양, 복지, 주거를 한번에 아우르는 '전남형 통합돌봄' 수립·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연찬회'를 갖고 전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도와 시군 읍면동, 보건소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연찬회에서는 최정숙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팀장, 허숙 전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의 정

책 강연과 영암군, 영광군의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발표 등을 통해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영암군은 보건 의료·주거지원·일상생활·특화사업을 아우르는 '영암형 올케어(All-Care) 서비스'를 소개하며, 군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여수시를 시작으로 올해 8월 정부 3차 공모를 통해 22개 모든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전면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해 건강관리와 생활돌봄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고, 의료취약지역과 도서 지역이 많아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찬회는 의료, 요양, 돌봄이 하나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복지·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 부적정 업무 대거 적발

예산 낭비·하자관리 소홀 등

광주시 공기업인 도시공사와 산하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낭비, 공사 하자 관리 소홀 등 부적정 행정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10일 “지난 3~4월 도시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해 도시공사 19건, 상수도사업본부 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기관 경고와 시정·주의·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도시공사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와 달리 탄성코트를 보수가 용이한 무니코트로 변경, 공사비 1억여원이 증액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 일원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보도 침하와 물고임 등이 확인됐음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하고, 보행자 울타리 716m의 원가계산을 소홀히 해 아낄 수 있었던 공사비 6,600만원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육소방안전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행정예고, 골프연습장 제조 구매·관리, 용역계약 회계업무 처리 등에서 업무상 부적정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유지관리 용역 과정에서 당초 계약수량보다 부족한 물량이 납품됐음에도, 보완 요구나 설계변경

없이 용역비 7,200여만원을 낭비했다. 또 구경 100mm 수도계량기의 경우 설치 6년 후인 2022년 재검정 또는 신규 교체해야 함에도 해당 계량기 4570대에 대해 유효 기간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재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났음에도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GIS)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사례가 13건에 달했고, 신설된 배수관이 아닌 기존 노후 배수관(폐관)에 급수관이 연결된 것처럼 GIS 정보를 잘못 입력한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이밖에도 수도요금 체납과 태양광 발전 설비 관리, 검침 운영지침 마련 등에도 업무상 소홀함이 드러났다. 김용현 기자

최미숙 도의원 “전남 문화·관광자산 한류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진흥조례 발의

전남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한류산업으로 육성하는 조례가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 흐름에 맞춰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지



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고 창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한류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와 한류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

반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한류는 관광,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을 아우르며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며 “전남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한류산업 육성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와 경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가 지역문화 기반의 한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속 문화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인생을 맛있게 농심

환상적 밸런스의 매콤꾸덕함!

신라면툰바

후동바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신라면 투움바 레시피 맛 그대로!